

팜스코

해남 한우대학 설립

(주)팜스코 호남영업본부는 3월 9일 해남한우회(회장:박상주)와 함께 해남군 현산면에 한우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날 회원 21명과 지역내 한우농가 사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용일 축우PM의 한우회 사양관리 지도를 통해 성적향상 방향제시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 하였고, 고명빈 영업부장의 고급육만들기 주제로 한우회 출하성적 분석 및 고급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등 사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우경쟁력 강화 및 한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자 대학을 설립한 만큼 앞으로 (주)팜스코는 건강한 고급육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CJ제일제당

입문교육을 통해 소속감 고취와 대 역량 배양

- CJ제일제당 판촉과장, 부장 입문교육 실시

CJ제일제당 사료BU(BU장 박호인)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수원 LIG 연수원과 CJ인천 2공장에서 작년 하반기에 입사한 건설팅센터 TM(판촉과장, 부장) 9명을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CJ의 새식구가 된 TM들에게 회사의 역사, 문화 등 조직원으로써 소속감 고취 교육과 제품, 프로그램 등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축산 기술 교육 등이 이뤄졌다.

또 영업현장에서 고객과 접점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능력, 시간관리, 협상기술 등을 비롯하여 공장, 연구소 견학 및 운영 현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간에는 분임토의와 역할극(Role Play)을 통해 CJ사료사업의 구성원으로써 해야 할 일에 대해 심

도 있는 논의도 진행되었고 특히, 팀별 역할 극은 고객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한다. 교육 종료 후 평가과정을 통해 수료증을 전달받은 참석자들은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실무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CJ제일제당 사료BU 장재운 교육담당은 “앞으로도 연간 2회씩 신입 TM을 대상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내부적으로 역량이 풍부한 영업인력을 양성하고 고객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키길에그리퓨리나

22지구 제4차 한우사랑CEO클럽 회의 개최

- 2009년 전라도 일천만원 한우 생산 기념하며 미래 논의

2010년 2월 25일 퓨리나사료(대표: 이보균, www.purinafeed.co.kr) 22지구(영업이사: 노경탁)는 전남 영암군 월출산 관광호텔에서 '제4차 한우사랑 CEO클럽 회의'를 200여 명의 한우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회의는 이전 주제인 고급육 생산 및 한우 수익성 향상 방안을 종합하고, 2009년 전라도에서 생산된 일천만원 한우를 기념하면서 미래 한우 사육방향을 논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황운석 퓨리나 축우마케팅 이사는 한우의 역사적 배경 및 변천사를 통해 현재 높은 한우의 인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일본의 고급육 시장을 예로 한우의 미래 목표를 제시하고, 한국을 넘어 'World Best Beef'로써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우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이를 위해 번식 암소의 경제 산차 연장, 생산 효율 및 안정성 제고, 쇠고기 섭취량 증가가 필수적이며, 퓨리나 한우 티엠알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한우 경영이 되기를 참석한 모든 분께 강조하였다.

이어진 일천만원 한우 성적 소개에서 윤주경 축우전략판매부장은 지난 2009년 전라남북도에서 생산된 일천만원 한우 53두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일천만원 한우의 성장 패턴과 퓨리나 한우사랑 명작과 한우 티엠알의 성장패턴이 거의 일치하여 퓨리나가 바로 일천만원 한우를 생산하는 견인차였음을 입증하였다.



한우사랑CEO클럽에서 일천만원 한우기념패를 받으며

일천만원 한우 생산 노하우로는 크고 건강한 송아지 구입/증체량 증가 저해요인 철저히 배제하여 올바른 사육환경 조성/퓨리나의 한우 프로그램 준수/정기적 체중 측정으로 개체별 성장 패턴 파악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에 지난 2009년 일천만원 한우를 생산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천만원 한우 시상패 전달식'이 있어 참석한 농가의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내년에 나도 한번 일천만원 한우 출해보자는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



한우사랑 CEO클럽 로고

드라발

드라발 VMS - "2010년 농업 기계상" 수상

드라발 로봇 착유기 VMS가 폴란드 농업 박람회 Agrotech (2010년 3월 12-14일)에서 "올해의 농기계상"을 수상했다.

드라발 제품 담당 부사장인 앤드루 터너씨에 따르면 "2010년형 VMS의 출시 이후 이렇게 빨리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다. 드라발의 최신 로봇 착유 시스템은 착유에 있어 관리 시스템을 한 층 더 강화되고 유지비용은 줄어들게끔 개선한 제품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우유 가격의 변동이 심한 현 상황에서 농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라고 전했다.

드라발 로봇 착유기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견고한 시스템이다. 지난 10년간 VMS는 지속적인 발전 및 업그레이드를 해 왔으며 항상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완벽함을 추구 해 왔다.

VMS2010은 낙농산업에서 자동화 기술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에 출시되었다. 낙농가의 수익 증대 및 유질을 개선 시키는 자동화 기술에 대한 농가의 요구 및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 드라발 VMS2010은 이전 출시된 버전의 기능에 더하여 개선되었다.

VMS 최신버전은 속도와 제어 향상을 위해 터치스크린 방식의 사용자 친화적인 부분을 더 발전시켰으며 독자적인 유압식 로봇 팔에 민첩함과 유연함을 추가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2010년 모델은 유방염 전파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스팀 살균 장치와 같은 옵션을 추가하였다.

터너씨에 따르면 "매번 새 버전의 출시와 함께 드라발이 갖는 목표는 고객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런 점을 감안 할 때 VMS 2010은 드라발 농가에서 농가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요구에 부합하기에 매우 기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바로 Agrotech 박람회에서 VMS2010이 최고의 시스템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정확한 이유이다."라고 전했다.

덴마크 농업 자문국 (Danish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에서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로봇 착유기 중에서 드라발 자발적 착유 시스템 (VMS)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Agrotech Kielce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국제 농업기술 박람회로써 폴란드 내에서 동종 박람회 중 가장 유명한 박람회이다.

500업체가 참가한 이 박람회에는 1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4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다.



천하제일사료

천하제일사료 K.E.R과 브랜드협약 체결

- 토종 사료의 자존심으로 업계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려는 천하제일사료

국내 말 사료 선두주자인 천하제일사료가 지난 3월 9일 대전 하림중앙연구소에서 세계적인 말 전문 연구기관인 K.E.R(Kentucky Equine Research) 과 연구정보 공유 및 사업협력에 관한 브랜드 협약을 체결했다.

K.E.R은 1988년 페이지 박사가 미국의 켄터키주에 설립한 말 전문 연구기관으로, 6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 위에 세워진 연구농장에서 37명의 전문연구원 및 지원팀이 말의 영양과 운동생리에 관한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미국, 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고루 자리하고 있는 46개소의 말 사료 전문 사료회사들과 팀 멤버를 구축,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 말 영양 관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천하제일사료는 1988년 다크호스라는 제품 출시를 시초로 하여 말 사료 생산에 뛰어들어, 현재 그린호스 제품 라인, 에쿠우스 제품 라인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에쿠우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는 경주마 전용 사료로 토종사료의 자존심을 지켜내며 말 사료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을 진행하였던 특수가축 PM인 장익훈 부장은 '이번 K.E.R과의 브랜드 협약은 천하제일사료의 말 사료 품질을 세계 으뜸 수준으로 한층 도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 관련 영양과 운동생리에 관한 연구가 미진했던 국내 현실에 신선한 바람



왼쪽에서부터 김형준 부장, 이학림 상무, 클리리사 박사, 윤하은 대표이사, 이기웅 전무, 장익훈 부장

을 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아가는 승마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차세대 축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점차 말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여 고객과의 발걸음을 맞추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였다는 금번 천하제일 - K.E.R 브랜드협약이 과연 업계와 학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객에게 무엇이, 어떻게 제공될지 자못 궁금해지는 행사였다. ☺

